

웰에이징 교육자가 바라보는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관련 교수학습 활동 분석

염주희*, 김두리**, 장경희*, 김광환***

*건양대학교 웰다잉 융합 연구소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e-mail: jooheeyum@gmail.com

Well-aging educators' perspectives on educational programs of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Programs for the Elderly

Joohee Yum*, Doo Ree Kim**, Kyung Hee Chang*, Kwang-Hwan Kim***

*Welldying Convergence Lab., Konyang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Hospital Management, Ko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웰에이징 교육자를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정책과 관련한 교육의 중요도와 효과성을 파악하였다. 자료 수집은 한국갤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응답자는 45명이었다. 자료는 SPSS Statistics 25를 이용,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만-위드니 U검정을 실시하였다. 웰에이징 교육자의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 영역별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모델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나이는 평균 49.7세였고, 현재 근무 중인 분야에서 일한 기간은 평균 10.3년이었다. 이들은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영역 중에서 행정기관과 협력체계 구축하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전공 계열별로 관련 교육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계열의 76.0%, 비사회복지계열의 60.0%가 교육이 실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에 효과를 미친다고 인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웰에이징 교육과 노인일자리 사업 필수 교육의 협업을 제안하였다.

1. 서론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웰에이징 교육은 다양한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웰에이징을 가르치는 교수자에 대한 정보와 교육 여건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본 조사는 웰에이징 교육자를 대상으로 고령자의 소득지원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1] 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2. 연구 방법 및 분석 방법

본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수행하였으며, 웰다잉 전문가, 사회복지사, 보건의료인 등 웰에이징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총 45명의 연구참여자는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을 작성하였다. 설문에서는 연구참여자의 특성, 교수학습 활동 형태, 교육 효과성, 해당 정책에 관한 교육 필요도 인식을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5와 IPA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기술통

계, 교차분석을 실시했고, 전공계열별 비교에서는 척도형 종속 변수를 사용했으므로 만-위드니 U 검정을 수행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결론

연구참여자는 남성 44.4%, 여성 55.6%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49.7세였다. 전공 계열은 사회복지가 55.6%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대다수는(68.9%)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교육이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진다고 평가했다. 노인일자리 사업 영역 중 응답자가 생각하는 교육 중요도와 실행도를 조사한 결과, 교육 프로그램 홍보에 대한 실행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련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실행이 어려운 분야라고 하였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대표적인 노인복지정책으로, 웰에이징 교육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과 협업을 통해 건강한 노년과 관련한 교육 내용 제공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 2022년 2월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the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C2A04092504)